



입시전형안 6월 확정... 큰 변화 없을 듯

2010학년 청심중 입시전형안은 6월쯤 돼야 확정될 예정이다. 입시관계자는 “예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며 “단, 지난 4년간의 입시를 치르며 축적된 수험생들의 학업평가 기록과 재학생의 학습 성취도를 활용해 좀더 체계적이고 완성된 입시전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입시에선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을 통해 전국 단위 남녀 100명을 선발했다.(특별전형 34명, 일반전형 66명) 청심중 김효정 입학홍보부장을 통해 학교측이 전하는 입시전형 조안을 들었다.

전형준비 및 공략법

▶ 1차 서류전형

청심중의 서류전형에 통과하기 위해선 다방면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서류전형부터 학부모의 진을 속 빼놓기로 유명한 1차 전형은 지금까지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느 인증시험과 자격증을 확보해두는 게 유리한지 등 구체적인 입시 정보가 없다. 청심중을 염두에 둔 학부모 중 일부가 서류평가 요소에 부합되는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기 위해 관련 학원가를 기웃거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김효정 입학홍보부장은 “영어 능력 수상실적 교내외활동 리더십 봉사활동 등이 서류전형의 주된 평가요소”라며 “다방면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이라면 더더욱 좋겠지만 실제로 이 모든 평가요소에 부합되는 수험생의 비중은 극히 적다”고 전했다. 학생이 제출한 서류는 보통 관계자에 의해 3차례 검토를 받게 된다. 두 사람의 입시관계자가 팀을 만들어 서류를 검토하면 그 다음 두 명으로 짜인 또 다른 팀이 재검토를 하는 식이다. 합격선에서 아슬아슬한 학생, 눈에 띄는 평가요소를 가득 담은 학생이라면 최대 5차례까지 검토를 한다고. 먼저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인증시험을 살펴보자. 청심중은 성인영어능력인증시험인 토익 텀스 토플을 제외한 영어인증성적을 인정한다. 김 부장은 지원자의 대부분이 토셀, 펠트 성적을 제출하고 그 중 토셀 성적을 제출하는 학생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학원가에선 1차 서류전형의 결정적 요소로 영어능력, 수상실적, 학교임원 활동을 꼽았는데 이중 영어인증 시험이 가장 우선시되는 것 같다고 예측했다.

학원 입시전문가들이 말하는 청심

중 토셀 Intermediate 평균 등급은 3급 정도(일반전형 지원 시)이고 학원가의 합격생을 분석한 결과 2급 이상의 성적을 제출했다. 성인영어인증시험 성적으로는 iBT 100점 수준의 등급이다. 이 외에도 대원외고가 주최하는 국제영어경시대회 IET-2급 이상- 외국어대학교 주최의 FLEX-770점 이상- 등에 참가하길 권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영어인증성적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인 만큼 이를 잘 따라올 수 있는지의 능력을 평가하는 정도지 주된 평가요소 중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임원활동 사항에 대해서도 다른 요소들이 뒷받침되어 준다면 굳이 임원활동을 안 했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임원 경력 없이도 기타 대외활동과 봉사활동 등으로 수험생의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학업능력을 입증하는 대회 수상실적도 중요하다. 단, 사설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라면 대회의 공신력과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상실적으로 반영하진 않는다. 김 부장은 “지난 해까지 교내 수상실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마 2010학년 서류전형에서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가 워낙 많기 때문에 희소성을 띄는 대회에서 수상을 했다면 깊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다. 지원자의 대내외활동 사항도 주요 평가요소 중 하나인데 되도록 다양한 경험을 한 학생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시도교육청과 각 구청, 지역교육청, 지역청소년수련원, 영어마을, YMCA 청소년사업부 등에서 주최하는 리더십 캠프나 각종 다양한 활동에 두루 참가해 보는 게 좋다.

봉사활동 부분은 초등학생들이 활동적으로 참가하기엔 제약적인 요소

들이 많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김 부장 역시 “봉사활동 요소는 우리가 봤을 때도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학부모가 학생 대신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평가할 때 ‘이 학생이 직접 참여한 것인지’ ‘학생 신분에 맞는 활동이었는지’ ‘단기성의 봉사활동이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그나마 초등학생에게 가장 활동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주는 보이스코우트와 걸스카우트, 아람단 활동의 반영여부는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김 부장은 서류전형에서 좋은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선 “모든 방면에 재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보다는 특정 분야를 깊이 있게 열심히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 2차 심층면접

서류전형을 통해 4배수를 선발하여 2박 3일간 캠프 형식으로 심층면접(영어 학업 인성)을 치른다.

영어면접에서는 영어로 자신의 의견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영어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무리가 없는지를 평가한다. 주제는 당일 출제자들에 의해 정해지며 인터뷰 자체의 난이도는 중하위 수준 정도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질의응답이 이뤄지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대답할 수 있는 주제가 출제된다는 얘기다.

인터뷰에는 2개의 주제가 출제된다. 1단계에선 지원자의 말문을 트기 위해 비교적 편한 질문을 던지는 식이며 보통 1분내 답을 해야 한다. 지난해엔 “청심에선 룸메이트를 배정해 기숙생활을 해야 한다. 그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 예상 가능한 인터뷰 주제가 개인면

접 공통문제로 주어졌다. 2단계에선 좀 더 사고능력을 요하는 주제가 주어진다. “산성비로 인한 미국과 캐나다의 갈등에 관한 글을 주고 의견을 말하라”는 문제가 출제돼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했다. 영어면접을 위해 경제 사회 역사 분야를 총망라한 책을 읽거나 매일 같이 신문을 읽어서 시사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김 부장은 “얼마나 영어를 잘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지문을 읽어 내려가는 능력과 내용에 대한 이해력, 논리력을 집중적으로 살피기 때문에 사교육을 통해 영어면접을 준비할 필요는 절대 없다”고 말했다. 합격자 400명 중 2박3일 영어점수 하위 100명을 먼저 탈락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단 300명 안에 든다면 다음은 영어실력보다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표현하는 능력이 합격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라도 심사위원 앞에서 너무 긴장해 말 한마디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특별 · 일반전형 모두 영어면접을 실시하는데 영어우수자전형에 지원한 학생은 영어토론으로 면접이 진행된다. 10명의 그룹별 1차 토론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조별 20명씩 2차 토론을 실시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우수한 몇 명의 학생에게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영어토론 방식은 초등학생 수준에서 찬반을 나뉘 논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주제로 무작위로 찬반을 나눈 후 이에 대한 의견을 주장하는 식이다. 일본어우수자로 지원했다 해도 영어토론 시험을 치러야 하며 별도로 일본어 면접도 치르게 된다.

학업면접에는 초등 전 학년 교과를 바탕으로 통합교과적인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된다. 단순 암기가 아닌 응용능력, 해석능력을 묻는 고차원적인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하는데 김 부장은 “출제위

원들이 기본적으로 초등교과서를 들고 출제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선행보다 심화학습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업면접에선 수학 사회 과학을 치른다. 학원가에선 수학의 비중이 가장 높을 것이라 추측하지만 학교측은 “어느 과목 하나가 학업면접에서 우위를 점하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수학의 경우 면접관들이 문제에 대한 풀이과정과 적용사례에 대해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답만 외워서는 안 된다는 게 학원입시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학업면접은 초등 교과서를 바탕으로 사회 경제 시사 등과 연계된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단편적인 학습법을 고집하는 학생이라면 문제 풀이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지난해에는 영재교육원의 창의적 영재성 판별검사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와 그림, 그래프 위주의 구성된 문제들이 출제됐다. 시사 역사 사회 부분을 연계하여 문제가 출제되지만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생활 속의 사건 · 사고들과 연계해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게 김 부장이 주는 학업면접 팁이다.

인성면접은 기숙사생활을 하는 데 부적격자를 골라내는 정도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엔 일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인성면접이 진행됐다고 알려졌다. 인성면접에선 지원자의 전체적인 품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대개 예측 가능한 평이한 질문을 하는 편이다. 하지만 질의에 대한 답을 예측해 암기해온 아이라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학교측에서 내세우는 교육프로그램과 청심국제중고의 연계학습, 서울권 국제중과의 차별화된 점이 무엇이며 청심만의 강점이 무엇인지는 지원자라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이다.

/정은희 기자 blog.veritas-a.com/miner

이종효(62) 교장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 1977년부터 2002년까지 30년간 부산의 한국테크노과학고에서 교사·교감을 역임했다. 2002년 학교법인 청심학원 사무국장으로 초빙돼 청심국제중고교 설립추진위원을 지냈으며 2006년 청심국제중고교 초대 교장으로 영입됐다. 이 교장은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청심 열풍’을 불러일으킨 주역으로, 학교 설립 이래 언론과의 접촉을 극도로 삼간 CEO형 교장으로 유명하다. 청심학원 설립과 영어사교육 열풍 시기가 교묘하게 맞물려 마치 이 교장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인물로 내비쳐지기도 했지만, 이에 대해 이 교장은 그러면 해명조차 하

지 않았다. 그러던 이 교장이 2009년 3월 신학기를 맞으며 청심학원 홍보를 진두지휘하고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이 교장은 “청심학원에서 첫 졸업생을 배출함으로써 이제야 입시 한바퀴를 완전히 돌았다. 학원의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 3년이란 시간이 걸렸고 이제 청심학원을 둘러싼 갖가지 오해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놔도 좋겠다는 판단이 섰을 뿐”이라며, 서울권 국제중을 의식한 학교 홍보가 절대 아님을 강조했다. 지난해 청심중이 거둔 진학실적과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고민 등에 대한 이 교장의 진솔한 입장을 들어봤다.

연 45억 원의 위력... 학교 시스템, 차원이 다르다

■ 이종효 교장 인터뷰

-2009학년 입시경쟁률만 봤을 때 대원중이 국제중 1인자로 등극했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학교 자체 평가는 어떤가.

“대원·영훈중의 첫 입시경쟁률이 높았던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첫 해 입시경쟁률은 무려 25대1이었다. (07' 52대1)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입시경쟁률이 높다고 그만큼 수준 높은 아이들이 몰릴 것이라고 예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첫 해 청심중 입시를 진행하기 이전 사교육 조장과 입시경쟁률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초등학교장들에게 한 학교 당 4명의 학생을 추천해 달라고 위임한 적이 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이 재미있다. ‘당신들이 처리할 사안을 왜 우리에게 맡기느냐’는 다소 당황스런 반응이었다. 학교장들에게 4명을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면 치맛바람이 센 엄마들의 등쌀에 바람 잘 날일이 없을 거라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인 것 같다. 결국 초등학교장이 교육청에 투서를 내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추천사항 해지를 요구하는 전화까지 받게 됐다. 입시경쟁률이 높으면 학교 부담 또한 커진다. 학교측의 속사정도 모르고 ‘사교육 조정 일등공신 학교’라는 말들이 나오니 수장으로서 답답하기 그지없다. 나는 결단코 입시경쟁률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서울대를 보라. 1.5대1 수준을 기록했다고 수준 낮은 학생들이 모이는 건 아니지 않느냐. 4회 입시까지 치르다 보니 해가 갈수록 청심 프로그램과 비전이 마음에 들어 청심을 선택한 학생 학부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를 우리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이미 청심·대원·영훈 교육시스템을 완벽히 섭렵한 고수들이다. 그런 학부모들이 청심으로 최종 지원했다는 것 자체가 학교의 운영방식과 시스템을 신뢰한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교육 관심도와 정보력을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라.”

-청심국제중고교가 올해 첫 신입생을 배출했다. 학교가 배출한 첫 진학실적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청심국제고 75명, 민사고 3명, 외대부속용인외고 2명, 해외유학 4명, 서울 일반계고로 9명을 진학시켰다. 항간에는 학교재단인 청심국제고로 졸업생을 흡수하기 위해 학교 측에서 별도의 수를 썼다는(서울권 외고 전형 고려하지 않은 3학년2학기 기말고사 스케줄, 청심국제고 진학 시 가산점 부여 등) 흥흥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는 걸로 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기말고사 기간은 연초에 짜여 있는 학교

계획안이라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이는 청심 학부모들을 붙잡고 물어봐도 모두들 수긍하는 대목이었다. (지난해 본지와 인터뷰에서 일부 외고들이 청심국제중 학생 선발 위해 전형일자를 늦추고 비교내신 추진의사까지 밝혔다고 했는데?) 양질의 졸업생들이 청심국제고로 진학한다면 우리로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성과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외고, 과학고, 자사고로의 진학을 반대하거나 막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청심국제중 졸업생은 청심국제고에 지원만 하면 100% 합격이라는 소문도 터무니없다. 지난해 청심국제고에 지원한 국제중 졸업생 79명 중 4명은 불합격처리됐다. 만약 가산점을 부여하고 뒷문을 열어줬다면 떨어진 학부모들이 가만 있었겠나.

내신 성적으로 지원 자격을 부여했던 것을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바꾼 민사고와 영어능력만으로 80명을 선발하는 대원외고의 2010학년 전형안을 보면 우리 아이들을 흡수하겠다는 의도를 금세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교사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43명의 교사가 본 수업은 물론 방과후 수업까지 모두 진행하게 된다면 그 수업은 교사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교사에 대한 처우도 과격적이다. 공립학교에서 받는 호봉에 최소 20%, 최대 100%의 연봉이 책정된다. 역대연봉을 받는 교사도 있다. 방학 때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교사 연수를 시키고 학생 수업만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도 준다.

학교도 기업경영 마인드로 접근해야 경쟁력이 있다. ‘고객을 만족시켜라’는 말은 옛말이다. 이제 고객을 ‘감동’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실력 있는 교사 확보가 우선이라는 말이다. 교사가 연구준비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교사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만든 배경이다. 행정실 직원과 별개로 현재 각 학년 당 4명의 직원이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을 가능토록 하는 게 바로 재단의 전폭적 지원에 있다. 청심국제중에 연 45

청심국제고 입학혜택 없어... 대원·민사 진학 반대 안해 질 높은 영어토론 수업 위해 교사 스카우트에 ‘올인’ 입학사정관제 취지 전형 내용에 고스란히 녹아있어

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청심 아이들은 청심의 교육철학과 비전을 3년 동안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며 성장해온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들도 청심을 알고, 나의 교육경영철학을 알기에 섰든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대원·영훈중의 역할모델이자, 현재는 경쟁구도로 그려지고 있다. 서울권 국제중과의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청심은 대원·영훈중과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국어 국사를 제외한 영어몰입수업과 경쟁력 있는 교사 스카우트, 재단 지원 금액만 하더라도 그렇다. 학교측이 경쟁력 확보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교사 스카우트다. 영미권에서 영어교사 자격증을 획득한 교사는 한국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 청심의 수업은 영어토론을 지향하기 때문에 영어는 물론 학생들의 상호비교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사를 초빙해야 하는 하는데 이런 100% 재능을 갖춘 교사를 한국 내에서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럼에도 청심학원 교원 수는 73명에 이른다. (청심국제중 43명 확보) 본 수업 외에 방과후 수업은 학생 3~5명만 모여도 반을 개설해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역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이 돈이면 웬만한 중소기업 하나가 세워질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다. 이와 별도로 연 150억 원이 학교 건물 증축 및 보수에 지원되고 있다.”

-청심중의 교육시스템이 뛰어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심국제고에 대한 시스템은 아직까진 반신반의한 상태다.

“2009학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청심국제고의 대입 실적이 세간의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국제진학부 총원 49명 중 미국대학 지원자 36명 전원이 100% 미국 50위 이내 대학에 합격했고, 이 중 IVY/IVY PLUS대학 합격자만 19명(50%)에 이른다. 국내진학부 38명의 성적도 괄목할만하다. SKY 16명(42%), 성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주요사립대 16명 진학, 주요대학에만 34명이 합격했다. 1회 졸업생들이 특목고 입시전형이 끝난 이후 선발되었다는 점과 경쟁률이 2대1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내년엔 서울대 IVY 합격자를 각 10명 이상 배출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학생 성취도 통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다. 그렇다면 재학생의 22%가 해외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인데



22%면 민사고의 아성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내후년에는 20명 이상의 진학성적을 예상하는데 비율로는 44%에 육박한다. 올해 청심중 1회 졸업생 75명이 청심국제고로 흡수됐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진학률과 학생 성취도는 높아질 것이라 확신한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두고 말이 많은데, 청심중의 계획은?

“입학사정관제도의 취지는 학생의 성격과 개인 환경, 소질과 잠재력, 창의력,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청심중의 입시전형안을 잘 살펴봐라. 입학사정관제도에서 추구하는 바가 전형 내용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형식적인 제도에서 끝나는 게 아닌 기숙사생활과 수준별 수업을 통해 학생의 인성과 소질, 예의범절, 개인 성적 등을 배양 혹은 향상시켜 주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달라.”

/장은희 기자 blog.veritas-a.com/miner

취재 후기 **veritas-a.com** 클릭